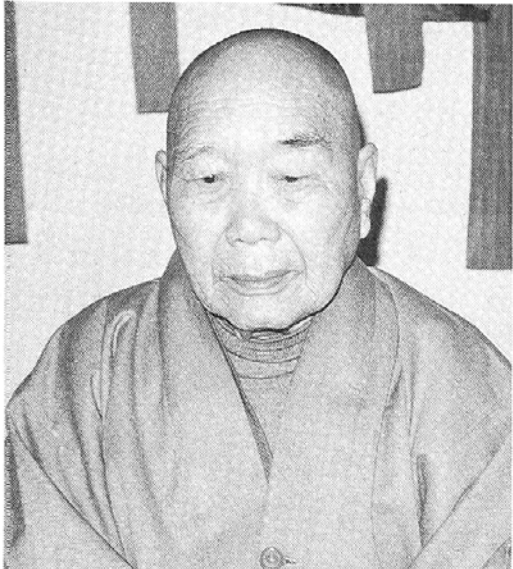


지난 4일 불기 2539년 올해는 동인계 해제를 맞아 전국의 선원에서 용맹정진해온 남자들이 만행의 길에 나섰다. 조계종 해인사 수덕사 통도사 송광사 등 4대 총림을 비롯한 선원에서는 이날 오전 일제히 해제 법요식을 갖고 방장, 조실스님의 해제법문이 있었으며, 3개월간 정진해온 공부를 점검받았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동인계에

**해제현장서  
만남 두 스님**

는 조계종 전국 64개 선원에서 총 1754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한국불교의 국제포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공주 신원사 국제선원에서 외국인 스님들 200여명도 인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동인계 기간중 최고령으로 정진한 운거스님(91세·홍주사)과 미국인 도문스님(46세·신원사 국제선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스님네 할일이 수행 아니던가”**



91세 최고령 안거수행 운거스님

은 사람들 좋아한거지.” 운거스님은 51세의 나이로 늦깎이 출가했다. 속가행님의 반대가 워낙 컸었다. ‘송장살이 몇번인데 또 한평생 닦지 않나. 헛된 이 몸 죽은 뒤에 다음 생을 어이 하나. 생각할수록 급하구나.’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의 경책을 듣고 퍼뜩 해인사의 인포스님을 찾아 가 출가를 결행했다.

러나 세상에 어디 쉬운 일이 있나. 내가 어디서 왔고, 올바른 마음을 구하자 는 것인데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분발 심을 내야지. 그러면 마음도 행동도 달라질거야.” 시중 곳곳하게 허리를 세우고 가부좌를 튼 노비구의 간곡한 당부 말씀으로 들린다. -깨달음에 대해 무엇입니까.

**“깨달음에 매달리기보다  
바른생각·말·행동 위한 공부”**

이후 지리산 정각사, 오대산 상원사, 인천 용화사 등의 선방을 찾아 30여년 동안 깨달음을 구했다. 이곳 홍주사에 주석하는 8년째다. 이번 안거 동안의 화두는 전강스님으로부터 받은 ‘이 뭇고’, ‘이 뭇고’는 전통북5권 남악회양장에서 유래한다. 육조스님이 남악회양에게 물기를,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송산에서 왔습니다.” 다시 육조스님이 물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즉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으라는 화두이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자기를 찾는 수행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부좌를 들고 꼼짝 않고 앉아있어야 하니 안해는 사람은 괴로울데지. 그

“그냥 들어오라 했더니 왜 어려운 얘기를 꺼내. 사람들은 깨달음이 무엇 이냐에만 매달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 한 종교학자는 “미래의 종교로 남아 계속 세인들에게 감화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종교는 불교 뿐”이라고 전망했다. 여름과 겨울 철두철미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불교의 수행전통이야말로 현대인의 생활에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선수행은 한국불교의 맛줄이며 생명이다. 위세 노비구의 안거수행, 어찌 불자들을 향한 무언의 준엄한 경책이 아니겠는가. 화성=정성근 기자

“늙은이가 수행을 한다면 얼마나 한다고 먼 길을 찾아와,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와.” 문득 조주스님의 깎다거(契茶去)가 떠올랐다. 찾아와 도를 묻는 이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나 한잔 마시게’ 했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았으리라. 홍주사의 운거스님. 세바 91세도 놀랍지만,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번 동인계는 물론 출가 이후 안거를 한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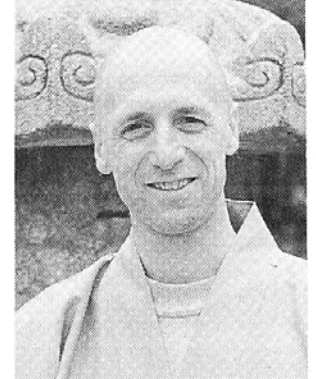
물론 나이 탓에 몸이 움직여주질 않아 하루 네차례 참선에 꼬박 참석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정식으로 방부를 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만은 철저히 지켰다. “스님네 할 일이 수행 아니던가. 소일보는 스님네야 수좌를 뒷바라지하니 빈틈이 있었지만, 소일도 넓게 보면 수행이지. 나야 소일이 있다. 젊은 사람 들처럼 바쁜 일이 있잖나. 가만 있으면 병들어오는 것이 몸의 이치, 그래서 젊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닻음이죠”**

10년동안 20안거 성만 미국인 도문스님

“1천 6백여년동안 지닌 한국의 선종이 오히려 살아 숨쉬는 선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구하고 있노라면 서양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선미(禪味)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선수행만을 고집해 온 도문스님(미국, 46)은 동인계 해제식을 마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지난 77년 송산스님을 친견하면서부터 한국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선에 매료되어 84년 득도했다. 그는 스님은 고향 필라델피아에서 수역 만리 떨어진 한국을 찾아 지금까지 10여년동안 공주 신원사와 화계사의 국제선원에서 용맹정진해 오고 있다. 국제포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스님의 구

도수행은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언어와 인종, 국경을 초월한 18개국 40여명의 수행자들이 동참한 이번 동인계는 “가부좌 틀고앉아 참구 하노라면 서양서 맛볼수 없는 禪味 느껴” 스님은 “이번 동인계 동안 낯설을 가리지 않고 참선과 독경정진으로 자신의 실체를 깨우치기 위해 한겨울의 추위도 있고 살았다”며 “오늘 해제식은 수행의 끝이 아니라 더욱더 용맹정진 하라는 제책으로 알고 정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주=김중근 기자

**사무사유의 뜻 궁금해요**

스님께서 설법하시는 중에 가끔 사무사유가 현대 합쳐서 무위세계 유위세계가 같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사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강성현·부산 서구 동대신동>

사무사유의 용어풀이가 궁금하신 모양인데 그냥 무위세계 유위세계가 돌아간다는 말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무라고 하면 유위법 즉 물질세계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말하자면 무색의 경계, 공의 자리를 뜻합니다. 사무를 사무색이라해도 좋고 사공처라 해도 됩니다. 시공이 끊어진 자리라 해도 좋습니다. 또 공무변치니 식무변치니 무소유치니 비상비비상치니 하면서 넷으로 나눠 말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알음알이 보다는 사무하면 그냥 무! 해도 좋고, 공! 해도 좋습니다. 사무도 그냥 유위세계로 보면 됩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중생이 미혹에 빠져 생사유전하는 상태라고 해도 좋고, 색계를 이룬다 해도 좋습니다. 넷으로 나눠서 생유·분유·중유·사유라고 하지만 그냥 윤회의 굴레, 또는 힘이 있는 유위세계라 해도 됩니다.

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바른 스승의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만 좇으면 됐지 절에 가서는 뭐하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바르게 나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에 흔하듯 기록으로, 이론으로 좇아가고 형상에 매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늘 말하지만 불교는 일체의 생명과 마음이 상통하는 도리를 일컫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불교가 아니고 진리 그 자체를 이룬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지만 불교에서 가르치는 마음도리를 벗어난 것이면 이름을 떠나 그 무엇이 되었든 바른 길은 아닌 것입니다.

**저승갈때 뭘 가지고 가나요**

<여보게 저승갈때 뭘 가지고 가지>라는 책을 써서 한때 크게 화제를 낳았던 스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공감하는 비가 컸습니다만 최근 몇몇 월간지를 보니까 그 스님에 대한 서언치 못한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승갈때 뭘 가지고 가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스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조현동·전남 여천시 중흥동>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발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생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개제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흔하듯 사무사유다, 무위세계 유위세계다 하면 별개로 생각하기 쉬운데 유무가 상통하여 풀어안줄 이게 이 공부입니다.

**관법 의지하면 종교 무관한지**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관법에 의지한다면 같은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훈·경기 안산시 신길동>

과일 가게에 가면 사과와 사과가리 배는 배거리 모아 놓았듯이 종교와의 인연도 다짐에 따른 마음에 따라서 오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다 천주교다 불교다 하는 이름에 좌우되기 이전에 공부인연을 지녔는지 사명인연을 지녔는지 아니면 오랜 습관에 이끌렸는지 아무튼 마음에 따른 자동적인 인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다 이름이고 그 알맹이는 진리라고 한다면 어느 종교를 따르던 마한가 차이있지만 가르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실때 약마도 나타났고 미녀도 나타났고 신장도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자신의 속업이 환상으로 막 드러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만 그럴 때에 그 환상에 고달라서 이견 미나구나, 이견 부처구나 하고 쓰러지고 혹은 이견 마구니구나 하고 두려워한다면 공부는 커녕 잘못되

이승 저승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또 어디 있고 천당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행하는 거기에 바로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이승 저승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대로 체득체득 업적으로 쌓였다가 인연생기의 도리는 그 업식 짙어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니 천당도 지옥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내가 없으면 가져갈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가져올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입니다. 저승은 뭐고 가져갈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한번 돌리면 바로 극락이라 하지 않습니다.

**3차원 세계를 사는 도리는**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도리로 살아가야 합니까? <장신명·경기 평택시 고덕면>

보고 듣는 이 세계야 3차원 세계였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따라서는 3차원에 묶여 사는가 하면 4차원도 그 이상의 차원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와 인간이 마음 바탕에서는 직결되어 있으며 세상만사 돌아가는 근본이 바로 인간의 마음먹기와 연결되어 있으니 그냥 한덩어리라 해도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 생각이 나의 인생의 생각이 아닙니까. 따라서 지구와 인간의 관계, 우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도리를 따라 살 것인가는 스스로 아닐 것입니다.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불치병, 불행과 액운, 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히운을 편히 모셔주면 자신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계의 영약이 되는 비법을 오령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오령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령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 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만성질환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장질환

**들방과 액운상담** 고난과 시련, 불행한 액운, 사업실패, 가정불행, 화업 실패, 결혼실패

장 소: 대한불교 불심포교원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위) 상담접수: (051) 465-5100, 467-5200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사용에 보세요!**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세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글은 살이 있다. (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 16. 목이 딱딱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7. 변비가 있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